

호남석유화학 주가 “최고점 도달”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조정 잇따라 ... 가격상승 및 마진확대 정점 기록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급등을 반영해 증권사들이 호남석유화학에 대한 목표주가를 속속 올려잡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격 급등세가 조만간 주춤해지면서 석유화학기업의 주가상승 모멘텀 역시 다소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증권은 9월8일 수급불균형과 고유가 기조로 3/4분기 중 호남석유화학의 주력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마진도 크게 확대됐으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1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세종증권은 3/4분기 호남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이 1125억원에 달해 분기 기준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영증권 역시 호남석유화학의 3/4분기 및 2004년 전체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원에서 5만9000원으로 크게 올려잡았다.

신영증권은 EG(Ethylene Glycol) 가격이 8월 한달 동안에만 26% 이상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증권도 석유화학제품의 마진 확대를 반영해 호남석유화학의 2004년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를 1만1192원으로 기존 대비 7.5% 상향조정하고 목표주가도 6만2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LG석유화학과 한화석유화학의 목표주가도 각각 2만85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7500원에서 9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삼성증권은 “석유화학 경기가 2005년 하반기 또는 2006년 상반기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견해와 화학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지만 10월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석유화학 주식의 단기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증권도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및 마진이 정점에 도달한만큼 이제 차익을 실현할 때이며,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어 화학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9/09>